

아버지 됨의 예술

© 2006 년 4 월 아세르 인트레이터

다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아버지”로 그리기로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의 진정한 본성에 가장 가까운 것입니다. 예수아께서는 기도 가운데 친밀함과 신뢰로 아버지와 대화하셨습니다. 아들이 아빠에게 하듯 말이죠.

마태복음 6:9 - "우리 아버지"

마태복음 11:25 - "아버지"

요한복음 11:41 - "아버지"

요한복음 17:1 - "아버지"

물론 히브리어로 아버지는 **아바**입니다. 아이들이 저와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할 때, 첫 몇 마디에 아바라는 말을 들으면 제게 말을 거는 것인지 기도로 하나님을 부르는 건지 헷갈립니다.

참고: 히브리어에서 문자에는 수 개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단어는 세 개 자음의 어근으로 되어있습니다. 아버지는 A-B-A로 되어 있어, 숫자로 풀어보면 1-2-1 이 됩니다. “디지털 식”으로 말을 하면, 이건 수학적으로 형성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어근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에는 친밀함과 권세, 지혜, 인내, 광대하심, 놀며 주고 보호하고자 하시는 갈망, 그리고 자기 희생의 의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당신의 자녀들과 시간을 보내며 소통할 때 깊은 만족이 있습니다. 주께서는 우리가 그저 그 분과 함께 있으면 기뻐하십니다.

창세기 22:1 에서 아브라함은 그의 독자 이삭을 세계의 구속을 위해 제사로 바치라는 말씀으로 도전 받습니다. 요한복음 3:16 에서 하나님께서는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하나 뿐인 아들을 세상에 대한 사랑으로 주시는 것을 보냅니다. 이 두 구절 모두, 아들이 바쳐지는 것보다는 제물을 바치는 아버지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아버지라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모두 할 수 있다면 당장 위치를 바꾸려 하셨으리라 장담합니다. 스스로 고통을 감내코자 하셨을 겁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악 되고 반역적인 아들 압살롬이 나무에 달린 채 찢려 죽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는 울부짖었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너 대신에 차라리 내가 죽을 것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삼하 18:33)!” 십자가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더 찢어졌겠습니까!

진정한 성경의 언약적 믿음은 아브라함으로부터입니다. “조상(father, 아버지)” 아브라함이잖습니까? 하나님께서 영원을 내다보시며, 창조될 모든 이들의 영혼을 보신 결과 당신의 아버지로서의 마음에 가장 가까운 본성과 성향을 가진 이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서는 그 이상을 원하셨습니다. 다가올 모든 세대에게 믿음을 통해 그것을 전수하시기 위해,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버지의 영의 “엑기스를 뽑아” 내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엑기스 뽑기”는 세 단계로 진행되었습니다.

- 1) 아브람에게 열국의 아비, 곧 전 세계 믿는 이들의 아버지가 되리라는 약속을 주심
- 2) 그로 하여금 100년 동안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게 하심
- 3) 그에게 사랑과 믿음의 시험으로 아들을 포기하라 하심

이 하나님의 시험은 저를 몸부림치게 하며, 아브라함의 신실함은 입이 떡 벌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아들은 어떻습니까 (이삭과 예슈아 모두)? 이삭은 아버지에게서 무얼 보았길래 자기가 죽게 될 것을 알면서도 온전한 믿음으로 그 제단에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 답이 두 단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온전함**과 **친밀함**이지요.

이삭은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사랑이 얼마나 진실된지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선한 것만을 원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온유함과 관대함을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깊고 건강하며, 튼튼함을 알았습니다. 그는 종교적 광신도가 아니었으며 언약에 충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믿을만하다는 사실이 그 손에 쥐어진 칼보다 더 실제적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부자 간의 친밀함이 세대를 타고 내려와, 저도 약간이나마 아버지를 통해 느낄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그와 같은 아버지 됨의 “핵심”이 제 아이들에게도 전수되고, 저의 영적 아들 딸들에게도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것이 모든 나라와 민족 가운데 있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에게도 전해졌음을 믿습니다. 이것이 언약의 “골자”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을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 친히 명명하십니다. 그저 그 세 사람의 하나님 만이 아니라 그들의 부자 관계를 통해 나타난 언약적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좋은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과학 이상이지요. 예술인 것입니다. 저에겐 예술적 재능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예술 감각 중 이 하나만은 저를 통해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많은 사탄의 공격이 진정한 아버지 상을 왜곡하는 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종말의 때를 지배하는 두 가지 영 (짐승과 음녀)은 남자로 하여금 영적 아버지가 되지 못하게 막습니다. 성적 부도덕, 폭력, 탐욕, 야망, 종교성, 이세벨의 영 등 모든 게 영적 아들 딸들이 될 이들의 믿음을 부숩니다. 이 신뢰의 부패는 최초의 거짓말로 말미암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창 3:1)”

고아 되어 소외 받는 세대가 영적 아버지를 찾아 부르짖고 있습니다.

아버지 됨의 예술은 물리적 가정 가운데 제자도나 멘토링과 같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이라 불렀고 (빌 2:22, 딤후 1:2, 딤후 1:2, 2:1) 오네시모도 그렇게 불렀습니다 (몬 1:10). 그는 아버지로서 목회에 임했습니다 (고전 4:17, 살전 2:11).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일 2:1, 18). 베드로도 자신의 제자 마가에게 그랬습니다 (벧전 5:13).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예수아의 아버지와의 관계, 아브라함의 마음, 사도들의 사역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실제로 생생히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왕국의 중심 축입니다 (골 1:13). 우리가 하늘 아버지께 좋은 자녀들이 되며 (잠 10:1),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과 제자들에게 좋은 영적 부모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참고: 이 글에 대한 게시는 2006년 3월 23일 밤, 7년 전 주님께로 가신 아버지의 생신임을 뒤늦게 깨닫고 받게 된 것입니다.

Shaul Byunghyun Lee